

# 한글 성경의 성(性) 관련 용어들의 번역 용례 연구

이영미\*

## 1. 들어가는 말

최근의 번역학은 물론이고 성경해석학에서 번역이나 해석이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어떤 번역이나 해석이든 다양한 이념적,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sup>1)</sup> 모든 번역에는 번역자의 이념과 신학이 전제되어 있으며 어떤 번역도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소위 중심 가치에 의해 번역된 용어들이 객관적이고 본래적 의미를 반영한 번역인 반면 소수자들의 가치를 반영한 번역은 편협하고 왜곡된 번역이라는 비판에 대하여 중심 가치에 따른 번역 역시 주관적인 가치에 의해 본문의 의미를 채색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한 인식은 자신의 입장에 대한 자기성찰과 더불어 자신과 다른 입장의 의견도 귀 기울이고 폭넓게 이해하며, 발전적인 상호비평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특히 성경 번역은 번역자의 입장 차이를 넘어서 가능한 한 일관되고 포용적인 번역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번역의 일관성은 번역자의 가치와 신념에 따른 번역 차이를 최소화하고 폭넓은 독자층을 포용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이다. 유진 나이다(E. Nida)는 일관성 있는 번역을 위해 (1) 같은 맥락에서 동일한 단어와 구문은 같은 방식으로 번역할 것, (2) 병행본문의 경우 다른 점은 그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도록 번역하고 유사점들은 동일하게 번역할 것, (3) 일관성에 대한 검토는 번역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번역이 이루어진 이후에 행할 것<sup>2)</sup> 등의 세 가지 원칙을 제안한다. 그는 계속해서 일관성 검토는 구약과 신약 사이의 인용 본문들, 단어, 철자, 방점이 포함되는데, 단어의 일관성 검토를 위해서 성

\* 한신대학교 교수, 구약학. 이 논문은 한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Lawrence Venuti, ed., *Translation & Minority*, *The Translator* 4:2 (Oldham: St. Jerome Publishing, 1998)의 논문들을 참조하라.

2) Eugene Nida, "Checking a Translation for Consistency", *The Bible Translator* 5:4 (October, 1954), 178.

서 어휘색인(concordance)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sup>3)</sup>

이 글은 한글 성경의 성관련 용어들의 번역 용례들을 분석하면서 동일한 원천언어가 수용언어에서 어떻게 같게 혹은 다르게 번역되고 있으며 그 선택 배후에 깔린 신학적 혹은 이데올로기적 전제를 살펴보면서 성경 번역은 특정 집단을 소외하거나 가치 폄하하는 배타적 표현보다는 보다 포용적 표현을 선택하고, 상응하는 용어들은 일관되게 번역할 것을 제안하고자 함이다. 성관련 용어들을 분석사례로 선택한 이유는 이성애를 기초로 한 가족이 기본 단위가 되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드러내는 용어들이지만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꺼려하고 우회적으로 때로는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말들로 옮겨져 번역자의 이데올로기를 잘 표현해주는 용어들이기 때문이다.

개정개역판 개정 감수 작업은 1994년 3월 18일부터 시작되었는데 개정 감수위원회가 개정위원회에 밝힌 개역성경 개정 원칙의 중요한 내용<sup>4)</sup> 중 하나가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말은 다른 말로 대체한다”는 원칙이다. 개정 원칙에서는 그 예로 장애우들에 대한 용어를 제시하고 있으나<sup>5)</sup> 그보다 성과 관련하여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말들이 이 원칙에 더 많이 적용된다. 가부장제 사회의 기초 가치에 역행하는 부계 혈통에 대한 도전으로서의 혼외 관계, 그리고 동성애 등은 사회에서의 배타적 가치로 배격되어 왔기 때문에 그 용어들도 상당히 배타적이고 때로는 수치심을 자극하기도 한다. 이성애를 기초로 한 가부장제 사회에서 부계 혈통의 계승을 위협하는 성관계, 특별히 동성애는 터부시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용어의 번역에도 그러한 혐오는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아래에서는 그 사례들을 성관련 언어의 완곡어법, 강제적이고 억압적인, 혹은 사회에서 금기시된 성관계에 대한 번역, 그리고 동성애혐오적 표현 등으로 구분하여 용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Nida, “Checking a Translation for consistency”, 181.

4)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개정 감수위원회가 제시한 개정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문법상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 (2) 어휘의 선택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 (3) 개역 당시 어휘의 선택이 현재 그 의미가 바뀌어 오해가 있을 경우 현대 어휘로 고친다 (4) 제 3인칭 대명사 ‘저’와 ‘저희’는 각각 ‘그’와 ‘그들’로 고친다 (5) 사투리는 표준말로 바로 잡는다 (6) 준말은 그 원말로 바꾼다 (7)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말은 다른 말로 대체한다 (8) 명사나 대명사에서 의미 전달에 꼭 필요한 경우 소유격과 복수형을 분명히 밝힌다. (9) 개역의 본문이 오역임이 확실한 것은 바른 번역으로 고친다(성경전서 개역한글판 개정 감수위원회, “개역개정판 신약전서 출판에 관한 감수위원회 보고서”, 『성서한국』 41:4 [1995 겨울], 7-9).

5) 개역개정은 우리말 표현에서 차별언어와 기피 용어를 개정하였는데 그 예로 민영진은 문둥이→나병환자, 소경→맹인, 절뚝발이→다리 저는 사람, 병신→몸 불편한 자, 아버→아버지, 계집→여자, 여인, 소녀 등을 소개하였다. 민영진, “성경개역개정판, 무엇이 어떻게 개정되었나: 우리말 표현을 다듬고 뜻을 밝혔다”, 『월간목회』 296 (2001. 4), 166-169.

## 2. 성(性) 관련 언어의 완곡어법적 표현

### 2.1. 성관계에 대한 완곡어법

성이 개방적이지 못한 대부분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성에 대해 자유롭고 편하게 직설적인 표현을 쓰기 꺼려한다. 웬지 섹스라는 말은 얼굴을 붉히게 만들고 말하면서도 주위를 둘러보게 한다. 남자와 여자의 성기에 대해서도 우회적인 표현을 주로 쓴다. 직설적인 말을 쓰는 경우 상스럽다고 손가락질 받기 일쑤이다. 하물며 성경 안에서 성과 관련된 용어들을 번역할 때는 어떠하랴! 그러므로 성경의 성과 관련된 본문에서는 이에 대한 완곡어법이 자주 발견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비단 현대 번역에서뿐 아니라 히브리 성경 안에서도 그러한 완곡어법이 포함되어 있는데 성관계를 표현하는 히브리어로 ‘야다’(“알다”)와 ‘샤카브’(“함께 눕다”)가 대표적이다.<sup>6)</sup>

#### (1) ‘야다’ (“알다”)

구약시대의 사회가 성에 대한 완곡어법을 사용했음을 알게 해주는 대표적인 예가 히브리 동사 ‘야다’를 통해 성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점이다. 그 첫 예가 창세기 4:1 전반부에 나오는데 현대 한글 번역은 다음과 같다.<sup>7)</sup>

וַיֵּדָע אָדָם וְאִתְּחֻוּהָ אִשְׁתּוֹ

-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개역한글』]
-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개역개정』]
- 아담이 아내 하와와 한자리에 들었더니 [『공동개정』]
-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새번역』]
- 아담이 자기아내 이브를 알았더니 [『한글 킹 제임스 성경』]

한글 번역은 우회적이긴 하지만 “동침하다”, “한자리에 들다”라고 풀어서 번역한다. 그러나 킹 제임스 성경은 히브리어의 뜻을 그대로 직역하여 “알다”로 옮긴다. 창세기 19:8에 롯이 손님 대신 두 딸을 내어주는데 그들은 ‘로야테우 이쉬’(“남자를 가까이 아니한”)[『개역한글』, 『개역개정』]; “남자를 알

6) 이 글에서는 히브리어 한글음역은 ‘ ’로 한글 뜻은 “ ” 안에 표기하였다.

7) 이 글에서는 대한성서공회의 우리말 주요 성경역본들-『개역한글판』(1961, 대한성서공회), 『개역개정판』(1998, 대한성서공회), 『공동번역 개정판』(1999, 대한성서공회), 『새번역』(2001, 대한성서공회)-을 기본 비교본문으로 제시하였으며 필요시 다른 번역본-『구역』(1911), 『쉬운성경』(2001, 아가페출판사), 『한글 킹제임스 성경』(1994, 말씀보존학회)-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지 못하는”[『새번역』]; “남자를 모르는”[『공동개정』])으로 설명한다. 이처럼 한글에서 성경험이 없는 여자를 ‘남자를 알지 못하는’이란 표현으로 쓰는 경우는 있지만 창세기 4:1의 문맥상 “알다”라는 직역은 그리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이외에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맺는 맥락에서 ‘야다’는 “가까이 하다”, “잠자리를 같이 하다”, “같이 짝하다” 등으로 번역된다.

창세기 4:1의 문맥이 동등한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를 전제한다면, 출애굽기 21:8은 종속적인 남녀의 성관계를 묘사한다. 출애굽기 21:8 전반부에 대한 한글 번역은 다음과 같다.

אִם-רָעָהּ בְּעֵינֵי אֲדֹנֶיהָ אֲשֶׁר-לֹא [לֹא] עָרְהָ וְהִפְרָהּ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개역한글』]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개역개정』]

주인이 **데리고 살려고 했는데** 눈에 들지 않거든 몸값을 치르고 내보내라 [『공동개정』]

주인이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자를 샀으나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그 여자에게 몸값을 없어서 그녀의 아버지에게 되돌려보내야 한다 [『새번역』]

『개역한글』이나 『개역개정』은 주인(남)과 종(여)의 성관계를 표현하면서 상호성이 반영된 ‘동침하다’는 표현보다는 “상관하다”로 옮긴다. “상관하다”는 ‘서로 관련을 갖다’, ‘남의 일에 간섭하다’는 뜻과 함께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 관계를 맺다’는 표현으로 쓰이는데 이 말은 육체적 관계의 묘사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의미로 더 자주 활용되는 용어이다. 『공동개정』과 『새번역』은 ‘야다’를 각각 “데리고 살다”와 “아내로 삼다” 등으로 의미를 확대하여 제도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로 의역하고 있다.

창세기 4:1과 출애굽기 21:8의 ‘야다’는 여자와 남자의 성관계가 뚜렷이 전제되어 있는 경우이지만 사사기 19:22에서는 ‘야다’가 동성 간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문맥에서 사용된다. 사사기 19:22의 마지막 단어에 대한 번역은 다음과 같다.

לֵאמֹר הוֹצֵא אֶת-הָאִשׁ אֲשֶׁר-בָּא אֶל-בֵּיתָךְ וְנָדַעְנוּ:

우리의 **소원을 일우게** 하라 [『구역』(1911)]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개역한글』]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개역개정』]  
 우리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좀 해야겠소** [『새번역』]  
**좀 따질 일이 있으니까** [『공동개정』]  
 우리가 그 사람을 **강간해야겠소** [『쉬운성경』]

1911년 구약의 경우는 “소원을 이루게 하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의역을 하고 있어 문맥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고전적인 보수사회의 가치를 반영하는 완곡어법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다른 번역본들은 보다 직접적이긴 하지만 극히 우회적인 표현인 “상관하다”, “관계하다”로 번역한다.<sup>8)</sup> 『공동개정』의 경우는 완곡어법으로 보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의역을 제시하고 있으며 23절, “이 사람들, 그게 어디 될 말인가! 이런 나쁜 짓을 하다니!”의 문맥과 응집시키는 것이 모호하기까지 하다. 이는 독자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의 수용성과 내용에 관한 정보성 면에서 모두 적절하지 못한 번역이다. 『쉬운성경』의 경우는 번역자의 강한 입장이 반영되어 ‘야다’를 “강간하다”로 옮기고 있으나 독자의 수용성 면에서 포괄적인 번역은 아니다.

성관계를 묘사하는 데 가장 흔하게 쓰이는 일반적인 용어인 ‘야다’는 동등한 위치의 남녀 간의 성관계를 표현하는 한글의 우회적 표현으로 “동침하다”, “잠자리에 들다”, “가까이 하다” 등이 쓰이고 종속적인 남녀관계나 규범에서 벗어난 성관계를 묘사할 경우 “관계하다”는 용어가 선호되고 있음을 보았다. 이들 두 번역의 배후에 깔린 차이는 전자의 경우는 애정이 전제된 성관계를 전제하고 있으며, “관계하다”는 육체적 성관계의 행위 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 보인다. 그렇다면, ‘야다’에 상응하는 일관된 한글 번역으로 어떤 용어가 좋을까? 그 선택은 그리 쉽지 않다. 가장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단어 중 하나가 “동침하다”이지만 이 번역은 성관계를 표현하는 또 다른 히브리어 ‘샤카브’에 보다 더 잘 상응한다. 상이한 히브리어 단어는 다른 한글로 옮기는 일관성 원칙을 고려한다면 ‘야다’의 번역으로 “동침하다”가 아닌 다른 한글 단어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서로의 생각을 안다는 의미와 성적인 관계를 맺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그 안에 내포한 히브리어 ‘야다’에 상응하는 한글 단어가 무엇일까 딱히 떠오르지 않지만 굳이 선택한다면 “가까이하다”를 제안한다.

## (2) ‘샤카브’ (“눅다”)

‘야다’와 함께 성관계를 표현하는 데 자주 쓰이는 히브리어 완곡어법에 ‘샤카

8) 이와 유사한 맥락인 창세기 19:5에서 야다는 “그들과 상관하다”(개역한글, 개역개정, 새번역) 혹은 “그들과 재미를 보다”(공동개정), “그들을 욕보여야겠다”(쉬운성경) 등으로 번역된다.

브'가 있다. 레위기 18:20의 한글 번역은 다음과 같다.

וְאִל־אִשְׁתּוֹ עִמּוֹתָךְ לֹא־תִתֵּן שִׁכְבְּתָךְ לְגֵרַע לְטַמְאָהּ־בָּהּ: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간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찌니라 [『개역 한글』]

너는 네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하므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찌니라 [『개역개정』]

너는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정액을 쏟아서는 안된다. 그 여자와 간통하면 네가 더럽게 되기 때문이다 [『새번역』]

네 이웃의 아내를 **끌어들여 잠자리를 같이하면** 안된다. 그 여인에게서 너는 부정을 탄다 [『공동개정』]

히브리어 ‘샤카브’는 “함께 눕다”는 일차적인 뜻이 있으므로 성관계의 맥락에서 쓰일 때 “동침하다”(『개역개정』, 『새번역』)는 한글 표현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개역한글』의 경우 강제적 혹은 비윤리적 성관계에 대한 비난이 전제되어 ‘통간하다’로 옮기고 있으나,<sup>9)</sup> 히브리어 본문이 동일한 동사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일관된 용어 번역이 선호될 필요가 있다.

동일한 단어인 ‘샤카브’가 레위기 18:20에서 이성 간의 성관계를 묘사하였다면 22절은 동성 간의 성관계를 묘사하는데, 레위기 18:22의 번역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וְאִתּוֹ־זָכָר לֹא תִשְׁכַּב מִשְׁכְּבֵי אִשָּׁה תוֹעֵבָה הִוא: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개역한글』]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개역개정』]

너는 여자와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안 된다. 그것은 망측한 것이다. [『새번역』]

여자와 **자듯이** 남자와 한자리에 들어도 안 된다. 그것은 망측한 것이다. [『공동개정』]

동성 간의 성관계를 묘사하는 22절의 경우도 『개역개정』(“동침하다”)과 『공동개정』(“잠자리에 들다”)은 ‘샤카브’를 20절과 일관성 있게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개역한글』은 20절에서는 ‘통간하다’는 표현으로 남녀 간의 비규

9) 구역(1911) 역시 “통간하다”로 옮긴다.

범적 성관계에 대한 가치 판단이 전제된 용어를 선택했다면 22절에서는 ‘교합하다’로 옮김으로써 관계의 부적절성에 대한 번역자의 분명한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새번역』의 경우 20절의 남녀 간의 성관계에서는 일반적인 표현 (“잠자리를 같이하다”)을 사용한 반면 22절은 ‘교합하다’로 옮긴다. ‘교합하다’ 역시 성관계를 갖는다는 표현에 대한 완곡어법으로 가능한 번역이지만 동일한 히브리어에 대해 동일한 한글 완곡어법을 사용하여 일관성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히브리어 ‘샤카브’는 “눕다”는 의미와 이것이 성관계를 묘사하는 의미를 동시에 지닐 수 있으므로 성관계를 나타내는 맥락에서는 “동침하다”로 옮기는 것이 가장 적절한 용어 선택으로 보인다. 일관된 성경 번역을 위해서 이것이 혹 비윤리적 이성 간의 성관계나 동성 간의 성관계를 묘사한다고 가치 판단을 전제하여 다른 용어로 옮기기보다 “동침하다”로 통일해도 무관하리라고 본다. 상황에 대한 번역자의 가치판단보다는 사실 묘사(정보성)에 더 치중하려는 측면도 있고 원문의 같은 동사를 수용언어의 같은 동사로 옮기려는 원칙을 고려한 점도 있다.

그러나 동일한 히브리어 ‘샤카브’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강제적인 행동을 묘사하는 다른 동사와 함께 강제적인 성관계를 묘사하는 문맥을 구성할 때가 있다. 먼저 신명기 22:25의 번역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וְאִם-בְּשָׂרָה יִמְצָא הָאִישׁ אֶת-הַנְּעִרָה [הַנְּעִרָה] הַמְאֻרְשָׁה

וְהַחֲזִיקָהּ הָאִישׁ וְשָׁכַב עִמָּהּ וְמֵת הָאִישׁ אֲשֶׁר-שָׁכַב עִמָּהּ לְבָדוֹ: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개역한글』]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개역개정』]

어떤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들에서 만나서 **육을 보였을 때에는, 육을 보인** 그 남자만 죽이십시오. [『새번역』]

약혼한 남자가 있는 처녀를 다른 남자가 들에서 만나 **접탈했을 경우에는** 그 여자를 **접탈한** 남자만 죽여야 한다. [『공동개정』]

그러나 어떤 남자가 약혼을 한 젊은 여자와 들에서 만나 여자를 **강제로 붙잡아 성관계를 맺었으면** 그 여자와 함께 누운 남자만 죽이시오 [『쉬운성경』]

신명기 22:25는 강제적인 성추행의 사례들을 나열하는 범조항(신 22:23-29) 중의 하나이다. 여기서 ‘샤카브’는 ‘하짜크’(“힘을 가하다”) 동사와 함께 언급

되어 강압적인 행동임을 묘사한다. 모든 한글 번역이 문맥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여 두 동사를 합하여 “강간하다”(『개역한글』, 『개역개정』), “욕보이다”(『새번역』), “꺾탈하다”(『공동개정』) 등으로 번역한다. 『쉬운성경』의 경우는 두 단어를 각기 번역에 반영하여 “강제로 붙잡아 성관계를 맺다”로 옮긴다.

이와 유사한 또 다른 본문이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세겜이 행한 디나에 대한 성추행 사건이다. 창세기 34장은 흔히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여 디나의 형제인 시므온과 레위가 히위 족속을 몰살시켜 복수한 일화로 알려져 있다. 그 사건의 전말을 알리는 2절에 대한 번역은 다음과 같다.

וַיֵּרָא אֶתְהָא שֵׁכֶם בֶּן־חַמּוּר, הַחִוִּי נָשִׂיא הָאֶרֶץ וַיִּקַּח אֶתְהָא וַיִּשְׁכַּב אִתָּהּ וַיַּעֲנֶהָ

히위 족속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개역한글』]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개역개정』]

히위 사람 하몰에게는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세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다. 세겜이 디나를 보자,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다.** [『새번역』]

마침 그 지방 군주인 히위 사람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보고 **붙들 어다가 꺾탈하였다.** [『공동개정』]

히위 사람 하몰의 아들이며 그 땅의 추장인 세겜이 디나를 보고 **끌고 가서 강간하였습니다.** [『쉬운성경』]

세겜의 행동을 묘사하는 2절의 동사들은 ‘라카흐’(“취하다”) ‘샤카브’(“동침하다”), ‘아나’(“괴롭히다”)이다. ‘샤카브’는 성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다른 동사들, ‘라카흐’(“취하다”)와 ‘아나’(“억압하다, 괴롭히다”)와 함께 언급되어 강제적인 성관계를 묘사한다. 이 관계의 강압성과 부적합성은 5절에서 “야곱이 그[세겜]가 디나를 더럽혔다(타메)는 것을 들었다”는 표현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어지는 3절에서 세겜의 행동을 묘사하는 동사들 - ‘다바크’(“연모하다”), ‘아하브’(“사랑하다”), ‘디벨 알 레브’(“고백하다”) - 로 이 둘의 관계가 애정이 바탕이 된 성관계라는 해석도 있지만, 설사 이것이 애정이 전제가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당시 혼인 전의 성관계는 여성에게 치명적인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당시의 사회윤리 척도에서 부적절한 성관계인 것은 변함이 없다. 더욱이 애정이 있는 연인 사이일지라도 강제적인 성관계는 폭행이다. 레위기 18:20은 그것이 설혹 남녀 간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일지라도 부적절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은 “부정”한(타메) 것으로 평가한다. 한글 번역들은 이를 “강간하다”(『개역한글』, 『개역개정』, 『쉬운성경』),



“욕보이다”(『새번역』), “겁탈하다”(『공동개정』)로 옮겨 강제적인 성관계의 성격을 번역에 반영하고 있다.

위의 두 본문에 대한 한글 번역들이 ‘샤카브’가 다른 동사들과 함께 강압적인 성관계를 묘사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지만 그 단어 선택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 먼저 “강간하다”로 옮긴 경우는 히브리 본문이 “강간하다”에 상응하는 히브리 동사 ‘샤갈’이 아닌 ‘샤카브’를 사용한 점을 번역 과정에서 고려한다면 “강간하다”보다는 다른 상응어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 “겁탈하다”는 ‘위협하거나 폭력을 써서 물건을 빼앗다’ 혹은 ‘위협하거나 폭력을 써서 성관계를 맺다’는 의미로 용어 배후에 폭력 대상에 대한 소유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끝으로 “욕되게 하다”는 사건의 억압성(‘아나’)을 강조하기보다 피해 여성의 수치심에 초점을 둔 표현이다. 따라서 위의 번역들 중에서 ‘샤카브’의 일반적인 의미와 함께 ‘하짜크’ 동사의 강압성을 어울려 “강제로 붙잡아 성관계를 맺다”는 『쉬운성경』의 번역을 사용하거나 사실성을 좀 더 살린다면 “강제로 성추행을 하다”로 옮기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 3. 성폭력과 성희롱과 관련된 용어들의 모호한 번역들

성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들에 대하여 완곡어법으로 표현함으로써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성폭력과 성희롱과 관련된 용어들까지도 우회적이거나 완곡어법으로 모호하게 번역함으로써 오히려 경각심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발견된다. 다른 한편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폭력을 묘사하면서 그 용어 선택이 그 폭력성을 드러내기보다는 피해자의 수치심을 오히려 유발시키는 용어들로 번역되는 사례가 발견된다. 성폭력의 본문은 다른 가치 개입보다는 성폭력의 폭력성을 드러내주고 사실을 묘사(정보성)하는 데 집중된 단어 선택이 필요하다.

#### (1) 갈라 에레바(하체를 벗기다)

금기시된 성관계에 대한 표현도 우회적으로 표현된다. 레위기 18장은 금지된 성관계에 대한 목록을 제시하는데 6절은 다음과 같다.

אִישׁ אִישׁ אֶל-כָּל-שָׂאֵר בְּשֵׁרוֹ, לֹא חִקְּרָבוֹ לְגִלּוֹת עֲרוּוָה

너희는 골육지친을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개역한글』]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개역개정』]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가까운 살붙이에게 접근하여 그 몸을 범하면 안된다. [『새번역』]

아무도 같은 핏줄을 타고난 사람을 가까이하여 부끄러운 곳을 벗기면 안된다. [『공동개정』]

히브리어 ‘에레바’는 알몸(nakedness)을 뜻하는데, 출애굽기 28:42에 따르면 보다 구체적으로 허리에서 넓적다리까지 이르는 신체 부위를 나타내므로 이를 “하체”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개역한글』, 『개역개정』). 그리고 이 표현이 사회에서 금지된 성관계를 가리키고 있으므로 “벗기다”보다는 “범하다”로 옮기는 것이 좋다. 이러한 번역에 대해 박노철은 “당시의 근친상간의 잘못을 지적하되 혐오감을 일으키지 않는 표현으로 수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완곡한 표현으로 번역을 하였다”고 설명한다.<sup>10)</sup> 『공동개정』의 ‘부끄러운 곳을 벗기다’는 표현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그 의미가 모호해질 수 있다.

## (2) ‘샤갈’ (“강간하다”)

구약성경의 케레와 케티브는 마소라 학파들이 히브리 본문 안에서 강제적인 성관계 묘사도 완곡어법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신명기 28:30, 이사야 13:16, 예레미야 3:2, 스가랴 14:2에서 ‘샤갈’ (“강간하다”; 케티브)을 ‘샤카브’ (“함께 눕다”; 케레)로 바꿔 읽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sup>11)</sup> 네 본문 중에서 “강간”의 의미가 가장 뚜렷한 이사야 13:16의 번역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ועלליהם ירמטשו לעיניהם ישסובותיהם ונשיהם (תשגלנה) [תשכבנה]: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 목전에 메어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락을 당하겠고 그 아내는 **육을 당하리라** [『개역한글』]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락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육을 당하리라** [『개역개정』]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이 보는 데서 메어쳐져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들의 집은 약탈을 당하며, 그들의 아내는 **강제로 추행을 당할 것이다.**

10) 박노철, 『비유언어, 번역방법: 수사적 표현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학술정보[주], 2007), 137.

11) 김정우는 히브리 성경에 마소라 학파들이 완곡어법을 사용한 사례로 신명기 28:10의 본문과, 신명기 28:27의 치질(hemorrhage)이 부스럼, 종기(boils)로 바뀐 예, 이사야 36:12의 hora'yham (대변)은 터부시된 단어이므로 tso'atam(발을 가린다)로 수정된 예를 보여준다. “성경 번역과 신학의 관계성에 대한 고찰”, 『신학지남』, 17.

[『새번역』]

그들의 어린것들은 눈앞에서 박살이 나고 집은 털리고 아내는 **겁탈을 당하리라**. [『공동개정』]

전쟁 중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의 무방비한 성폭력의 위험을 경고하는 본문을 『개역한글』과 『개역개정』, 『공동개정』은 “욕을 당하다”, “겁탈당하다”는 우회적인 표현으로 성폭행을 표현하고 있다. 한글 번역들은 앞의 신명기 22:25와 창세기 34:2의 번역과 유사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케레 혹은 케티브 중 어느 것을 따르고 있는지 불분명하다. 그러나 『개역한글』과 『개역개정』은 신명기 22:25에서 “강간하다”는 표현을 쓰면서 여기서는 “욕을 당하다”라고 옮기고 있어 케티브의 경우를 취해 번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본문은 전쟁 상황에서의 사태의 심각성과 잔혹성을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히브리 본문 저자가 ‘샤갈’ (“강간하다”)이라는 강한 어조의 단어를 의도적으로 선택했다고 보이며, 한글 번역에서도 완곡어법으로 대치하려는 마소라 본문의 제안보다는 쓰인 대로 ‘샤갈’의 “강간하다”가 문맥의 뉘앙스를 더 잘 살린 번역이다. 그럼에도 최근에는 언론에서도 ‘강간’이라는 어휘 사용을 회피하는 추세이므로 ‘샤갈’은 피해여성의 수치와 피해를 강조하는 “욕을 당하다”보다는 “강제로 성추행 당할 것이다”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

다른 본문들에서 ‘샤갈’은 각각 “행음하다”(렘 3:2), “욕을 당하다”(슌 14:2) 혹은 “동침하다”(신 28:30)로 번역되고 있다.<sup>12)</sup> 신명기 28:30의 경우 호렘산에서 계명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받게 될 저주의 목록 중 하나로 언급되는데, ‘샤갈’을 “같이 동침하다”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묘사하는 것은 그 저주의 문맥에서 그 의미를 모호하게 하는 의역이다. 이를 “다른 사람이 그 여자를 성추행할 것이요”로 케티브 ‘샤갈’의 의미를 더 살려 번역한다면 저주의 성격을 좀 더 분명하게 해줄 것이다. 따라서 비록 마소라 본문이 ‘샤갈’을 ‘샤카브’로 바꿔 입을 것을 제안했을지라도 해당 본문들의 문맥이 강제적인 성추행을 묘사하고 있으므로 ‘샤카브’의 일반적인 번역인 “동침하다”보다는 ‘샤갈’의 의미를 살려 가해자의 폭력성과 억압성을 드러내는 “강제로 성추행 당할 것이다”로 일관되게 옮겨야 한다.

12) 여기서의 비교는 『개역개정』을 기본 본문으로 삼았다. “네 눈을 들어 험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 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렘 3:2);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슌 14:2);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신 28:30).

## (3) “강간하다”는 다른 한글 표현들의 일관성 점검

어휘 검색을 해보면 『개역개정』에 “강간하다”는 말이 네 번 나온다(창 34:2, 7; 신 22:25; 예 7:8). 『새번역』에는 하나도 검색되지 않으며, 『공동개정』에는 창세기 39:14, 예레미야 13:22, 호세아 4:2에 나온다. 호세아 4:2에 나아프(간음)가 언급되지만 강간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어느 문맥에서 이들 본문에 “강간하다”는 한글 번역이 도출되었는지 살펴보자.<sup>13)</sup> 신명기 22:25는 문맥상 강제적인 성관계를 묘사하는 범조항이므로 “강간하다”로 옮기고 있음을 이미 살펴보았다. 에스더 7:8에는 히브리어 ‘카바쓰’(“복종시키다”)가 쓰였는데 이 단어가 여자에게 적용되면서 “강간하다”로 의역되었다.

예레미야 13:22는 좀 더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한글 번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אַלֶּה בְּרַב עֲוֹנֶיךָ נִגְלוּ שׁוֹלֵיךָ נְחֻמְסוּ עַמְבֹּיֶךָ:

네 죄악이 크므로 네 치마가 들리고 네 발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개역 한글』]

네 죄악이 크므로 네 치마가 들리고 네 발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개역 개정』]

네 치마가 벗겨지고 네 몸이 폭행을 당한 것은, 바로 네가 저지른 많은 죄악 때문이다. [『새번역』]

어쩌다가 치마를 벗기고 강간을 당하였는지 알고 싶으냐? 너희 죄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공동개정』]

위의 번역들 중에서 『개역한글』과 『개역개정』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새번역』은 발뒤꿈치를 육체에 대한 대유법으로 간주, 몸이 폭행을 당하는 것으로 번역한다. 그러나 『공동개정』은 이를 “강간당하다”로 번역한다. 주요 영어 번역본들 중에서 “강간당하다(rape)”로 번역한 예는 없다. 『공동개정』의 번역은 예레미야 13:22의 상황이 전쟁에서의 강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역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몇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적절한 의역으로 판단된다. 먼저 성경에서 발은 남자의 성기를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임은 잘 알려져 있다. 할러데이(Holiday)는 ‘아케브’를 성기에 대한 은유로 설명하면서 이 본문을 예시로 제시한다.<sup>14)</sup> 치마가 벗겨지고 발뒤꿈치가 상한다는 것은 논리상으로도 모호한 연속행위이다. 따라서 이 본문은 발가벗기어 성추

13) 창세기 34장의 경우는 앞의 내용을 참조하라.

14) 할러데이 히브리어 사전 6901.

행을 당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성경은 성관계를 표현하는 대목에서 지나치게 직접적이어서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용어보다는 완곡어법으로 번역하기를 선호한다(개역개정 7번째 원칙). 그럼에도 완곡어법의 표현은 그것이 암시하는 내용의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정보성을 유지하고 동시에 수용자들이 명백히 이해할 수 있는 수용성을 담보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번역자의 가치 판단이 너무 뚜렷하게 반영되어 문맥마다 다른 용어를 선택하기보다 용어 선택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유사한 맥락에서 동일한 히브리어의 한글 번역이 가치 판단에 의해 일관되지 못하게 번역된 사례를 ‘토에바’ 번역을 통해 살펴본다.

#### 4. ‘토에바’와 동성애혐오(homophobia)

앞에서 지적했듯이 가족을 기본 단위로 하는 가부장제 사회에 가장 위협적인 성관계 중 하나가 동성애이다. 그런 만큼 많은 사회에서 동성애는 금기를 넘어서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 히브리 성경에서 동성애에 대한 본문을 번역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전제가 고스란히 드러남을 볼 수 있다. 레위기 18:22에서 동성 간의 성관계에 대한 본문과 마찬가지로 ‘사카브’가 쓰였는데 이에 대한 번역이 “동침하다”보다는 속된 표현인 “교합하다”로 옮겨진 사례는 이미 살펴보았다.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는 또 다른 사례가 유사한 맥락에서 ‘토에바’를 다르게 번역하는 경우에서 드러난다.

##### 1) ‘토에바’의 다양한 용례<sup>15)</sup>

‘토에바’는 구약성경에 117번 언급되는데, 제의적 혹은 윤리적 의미를 지닌다.<sup>16)</sup> 제의적 맥락에서의 의미가 더 우선적이고 많이 쓰인다.

15) ‘토에바’의 다양한 용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연구는 제이 미카엘슨(Jay Michaelson)의 논문을 보라. Jay Michaelson, “Does the Bible Really Call Homosexuality an ‘Abomination’?”, *Religious Dispatch* (July 1, 2010) <http://www.religiondispatches.org/archive/sexandgender/2826/2011.2.25>. 인용.

16) *BDB* 8441. 창 43:32; 46:34; 출 8:22; 레 18:22, 26f, 29f; 20:13; 신 7:25f; 12:31; 13:15; 14:3; 17:1, 4; 18:9, 12; 20:18; 22:5; 23:19; 24:4; 25:16; 27:15; 32:16; 왕상 14:24; 왕하 16:3; 21:2, 11; 23:13; 대하 28:3; 33:2; 34:33; 36:8, 14; 스 9:1, 11, 14; 시 88:9; 잠 3:32; 6:16; 8:7; 11:1, 20; 12:22; 13:19; 15:8f, 26; 16:5, 12; 17:15; 20:10, 23; 21:27; 24:9; 26:25; 28:9; 29:27; 사 1:13; 41:24; 44:19; 렬 2:7; 6:15; 7:10; 8:12; 16:18; 32:35; 44:4, 22; 겔 5:9, 11; 6:9, 11; 7:3f, 8f, 20; 8:6, 9, 13, 15, 17; 9:4; 11:18, 21; 12:16; 14:6; 16:2, 22, 36, 43, 47, 50f, 58; 18:12f, 24; 20:4;

(1) 제의적 ‘토에바’

‘토에바’의 근본은 ‘아보다 짜라’(“이방제의”)이고 그와 관련된 것들은 ‘토에보트’이다. 신명기 18:9-14는 이스라엘 백성이 ‘토에바’에 헌신하지 말 것이며 이는 다른 이방 국가들이 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제시한다.

9 네 주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중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10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11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12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중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중한 일**로 말미암아 네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13 너는 네 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14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너는 네 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개역개정)

신명기 7:25-26에서도 유사한 명령이 발견된다.

25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울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네 주 하나님께서 **가중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26 너는 **가중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 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 당할 것임이니라<sup>17)</sup>

신명기의 다른 많은 구절들(12:31; 13:14; 17:4; 20:18; 27:15; 32:16)에서도 ‘토에바’는 우상숭배, 자식희생제사, 신접, 및 다른 이방제의를 가리킨다. 신명기 역사서에서도 ‘토에바’는 이방나라의 제의행위를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sup>18)</sup> 예언서에 등장하는 ‘토에바’ 역시 우상숭배 제의를 가리킨다(겔 5:11; 6:9, 11; 7:20; 14:6; 20:7-8; 22:2; 44:6-7; 44:13). 에스겔 8:1-18은 ‘토에보트’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우상숭배 제의와 관련이 있는 ‘토에바’의 번역을 에스겔 22:2하반을 사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וְהוֹדַעְתָּהּ אֵת כָּל-תּוֹעֵבוֹתֶיהָ:

22:2, 11; 23:36; 33:26, 29; 36:31; 43:8; 44:6f, 13; 말 2:11 등.

17) 굵은 글자가 ‘토에바’에 해당하는 한글 번역임.

18) 왕상 14:24는 일반적인 우상숭배, 참조. 대하 34:33; 36:8; 36:14; 왕하 16:3은 자식 희생제의 참조. 대하 28:3; 왕하 21:2, 11은 우상숭배 참조. 대하 33:2.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하라 [『개역한글』]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개역개정』]  
 너는 먼저, 그 성읍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역겨운 일**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라. [『새번역』]  
 그들 가운데서 얼마나 **역겨운 것**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낱낱이 알려주  
 어라. [『공동개정』]

‘토에바’는 부정함 혹은 불결한 제의를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 신명기 범조  
 향에 따르면, 재혼도 ‘토에바’(신 24:4)이고, 옷을 바꿔 입는 것(신 22:5)도 ‘토  
 에바’이다. 그리고 ‘토에바’가 네 개의 본문(레 18:22; 20:13; 겔 22:11; 33:26)  
 에서는 동성 간의 성관계 혹은 이성 간의 부정한 성관계를 가리킨다. 한 예로  
 신명기 24:4는 ‘토에바’를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לֹא-יִזְכָּר בְּעֵלָה הָרִאשׁוֹן אֲשֶׁר-שָׁלַח לָשׁוּב לְקַחָתָהּ לְהוֹיֹת לוֹ לְאִשָּׁה אַחֵרָי  
 אֲשֶׁר הִטְמֵאָהּ כִּי-תֹעֵבָה הוּא לִפְנֵי יְהוָה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 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  
 내로 취하지 말찌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개역한글』]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남편이 그를 다시 아  
 내로 맞이하지 말찌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개역개정』]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으므로, 그를 내보낸 첫 번째 남편은 그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주님 앞에서 **역겨운 일**입  
 니다. [『새번역』]  
 그 여자를 내쫓은 처음 남편이 이렇게 몸을 더럽힌 여자를 다시 아내  
 로 맞아들일 수는 없다. 이런 짓은 야훼께서 **역겨워하시는 것**이다. [『공  
 동개정』]

위에서 보았듯이 이방제이가 ‘토에바’로 지칭되는 경우 “가증한 것”(개역  
 한글, 개역개정), “역겨운 일/것”(새번역, 공동개정), “혐오스런 일”(쉬운성경)  
 로 번역되었으며, 부정함 혹은 불결함을 가리키는 ‘토에바’도 “가증한 일”(개  
 역한글, 개역개정), “역겨운 일”(새번역과 공동개정)로 일관되게 번역되고 있  
 다. 단지 『쉬운성경』의 경우는 신명기 24:4의 ‘토에바’를 수위가 낮아진 “싫  
 어하는”으로 번역한다. 『쉬운성경』의 경우는 이상승배 제의와 부정함 혹은  
 불결함에 적용되는 ‘토에바’를 차별적으로 해석한다.

(2) 윤리적 ‘토에바’

‘토에바’는 또한 윤리적 의미를 지니는데, 신명기 25:16은 다른 추를 사용 하는 것이, 그리고 에스겔 33:26은 폭력이 ‘토에바’라고 말한다.

כִּי תוֹעֵבֶת יְהוָה אֱלֹהֶיךָ כָּל-עֲשֵׂה אֱלֹהַ כָּל עֲשֵׂה עוֹל:

무릇 이같이 하는 자, 무릇 부정당히 행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개역한글』]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개역개정』]

틀리는 추와 되를 가지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새번역』]

이런 짓을 하는 사람, 이렇게 속임수를 쓰는 사람은 모두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역겨워하신다**. [『공동개정』]

비윤리적 행위와 연관된 ‘토에바’를 번역하면서 『개역한글』과 『개역개정』, 그리고 『공동개정』은 이방제이나 불결함을 나타내는 토에바의 문맥에서와 일관된 번역을 보존하지만 『새번역』과 『쉬운성경』은 “싫어하다”로 옮긴다.

‘토에바’가 다양한 윤리적 오류들을 지칭하는 예가 잠언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악인의 길, 생각, 기도, 제물(3:32; 15:8-9; 15:26; 16:12; 21:27; 28:9), 교만(6:16; 16:5), 악담(8:7), 거짓된 측량(11:1; 20:10, 23), 거짓말(12:22; 26:25), 조롱(24:9)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부정의한 행동들은 『공동개정』이 일관성 있게 “역겨워하다”로 번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번역들은 “싫어하다” 혹은 “미워하다”로 옮긴다.

(3) 이스라엘이 ‘토에바’의 대상이 된 경우

끝으로 이스라엘이 ‘토에바’의 목적어가 된 사례들이 발견된다. 창세기 43:32는 애굽인들이 히브리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 부정하게 된다는 언급이 있다. 이를 『개역한글』과 『개역개정』은 “부정을 입다”로 『새번역』과 『공동개정』은 “부정을 탄다”로 번역한다. 『쉬운성경』은 “싫어한다”로 옮긴다. 창세기 46:34는 애굽인들이 목자를 ‘토에바’로 여긴다고 말한다. 출애굽기 8:26은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의를 드리면 애굽인들이 이를 ‘토에바트 미츠라임’으로 여길 것이라고 말한다. 이스라엘에게 비이스라엘 제의가 ‘토에바’였다면 애굽인들에게 이스라엘 제의도 ‘토에바’이다. 그러나 전자는 “가증한 것” 혹은 “역겨운 것”으로 번역되지만 후자는 “미워하다”(『개역한글』, 『개역개정』), “부정하게 여기다”(『새번역』, 『공동개정』)는 말로 번역된다. 번역자의



이중적 가치 기준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상의 사례들은 ‘토에바’가 한 문화에서 금기시되거나 터부로 치부되는 제의적, 문화적, 윤리적 요소들을 지칭하는 것을 보여준다. ‘토에바’의 대상이 되는 조항들이 존재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에서 발생하는 평가이다. 다시 말해 ‘토에바’는 본질상 상대성을 지닌 개념이며 경계 안에 있지 않은 어떤 것, 금기시 되는 것에 대한 문화적, 제의적 개념이다. 그러나 원천언어의 동일한 단어도 번역자의 신념에 따라 ‘토에바’가 수용언어에서 다르게 번역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비이스라엘적 우상제외와 관련이 있을 때는 “가증스러운”, “역겨운”, “혐오스러운”으로 번역되고, 부정함 혹은 불결함과 연관된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 유사한 언어들로 옮겨지는 것을 보여준다. 『쉬운성경』은 이를 “싫어하는”으로 옮긴다. 그러나 애굽인의 입장에서 비애굽적인 제의 즉 이스라엘의 제의를 지칭할 때는 “혐오스러운” 혹은 “가증스러운”이라는 번역은 발견되지 않으며, 대신 “미워하는” 혹은 “부정하게 여기는” 등으로 번역되고 있다. 또한 윤리적인 의미에서의 ‘토에바’가 “역겨운”으로 번역된 예가 없지 않지만 주로 “미워하다”, “싫어하다”는 표현으로 번역된다. 동일한 단어에 대한 번역일지라도 번역자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번역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토에바’를 일관성 있게 번역하기에 적절한 용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한글 번역본에 사용된 단어들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가증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꽤 씹히고 알밋다”이다. “가증하다”로 번역된 또 다른 히브리 단어는 ‘쉐케츠’인데 이 단어는 레위기 11:10, 12, 13, 20, 23, 41, 42에 7번 이상 나타난다. 가령 레위기 11:10은 “...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쉐케츠) 것이라”고 적는다. 이 단어는 주로 음식이나 제사와 관련되어 사용되었다. 이에 이학재는 ‘토에바’를 “가증한”으로 번역한 것이 잘못된 사전적 의미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sup>19)</sup> 다음으로 “혐오하다”는 말은 “싫어하고 미워하다”는 감정의 강한 표현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토에바’가 언급된 본문들은 종교나 문화, 법, 관습에서 금기시되는 조항들을 지칭하는 데 쓰이고 있다. 이에 대한 감정을 묘사하려는 용어가 아니다. 따라서 ‘토에바’는 “터부시되다” 혹은 “금하다”로 번역되는 것이 적절하다.

19) 이학재, “개역성경의 번역문제들”, 『개신논단』, 53. 이학재는 여기서의 번역은 ‘가증하다’보다는 ‘혐오스러운 것’으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개역개정』에 “혐오스럽다”는 번역 용어가 레위기 11:12, 20, 23과 열왕기상 15:13, 예레미야 51:37에 나온다.

2) ‘토에바’와 동성애혐오(호모포비아)

구약성경에 ‘토에바’의 대상으로 비이שראל적인 이방제의와 그와 관련된 제물이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고 비윤리적 행위 또한 ‘토에바’로 분류되고 있음을 지적했지만 성경에서 혐오의 대상으로 ‘토에바’는 동성애 본문이 가장 많이 인용된다. ‘토에바’는 성관계와 관련되어 네 번 언급된다(레 18:22; 20:13; 겔 22:11; 33:26). 이 중 레위기 20:13 전반부의 번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אִישׁ אִשָּׁר יִשְׁכַּב אֶת־זָכָר מִשְׁכַּבֵּי אִשָּׁה תוֹעֵבָה עִשׂוּ שְׁנֵיהֶם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 즉 [『개역한글』]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 즉 [『개역개정』]

남자가 같은 남자와 동침하여, 여자에게 하듯 그 남자에게 하면, 그 두 사람은 **망측한** 짓을 한 것이므로 [『새번역』]

여자와 한자리에 들듯이 남자와 한자리에 든 남자가 있으면, 그 두 사람은 **망측한** 짓을 하였으므로 [『공동개정』]

『개역한글』과 『개역개정』은 ‘토에바’를 “가증한 일”로 『새번역』과 『공동개정』은 “망측한 짓”으로 번역하고 있다.

‘토에바’로서 동성애는 터부시된 제의적 규례나 행위, 그리고 제의 대상들과 맥을 같이한다. 동성 간의 성관계가 ‘토에바’로 분류된 것은 이스라엘 종교에서 용납되지 않는 즉 터부시된 성관계로 평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성경본문에서 동성애는 종교, 문화적 관계의 개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 본질에 대한 존재적 규정에 대해 성경은 침묵하고 있다. 다니엘 헬미니악(Daniel Helminiak)은 이에 대해 해당 본문에 그 자체로 잘못된 것, 즉 불의나 죄를 뜻하는 히브리어 ‘찌마’가 아니라 ‘토에바’가 쓰인 점을 주목하면서 ‘토에바’가 문화적 종교적 금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sup>20)</sup> 성경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스라엘 종교가 동성애를 터부시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을 뿐, 이를 존재적으로 거부하거나 혐오의 대상으로 원천적인 정죄를 가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그 여백을 독자나 번역자의 신념으로 파고들어 동성애를 원죄로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

20) 다니엘 헬미니악, 『성서가 말하는 동성애: 신이 허락하고 인간이 금지한 사랑』, 김강일 옮김 (서울: 해울, 2003), 74.

## 5. 끝맺는 말

지금까지의 성관련 용어들의 번역을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고 포용적인 번역을 위해 다음과 같은 번역을 제안하면서 글을 마친다. 먼저 성관계를 나타내는 히브리어의 완곡어법인 ‘야다’와 ‘샤카브’는 성관계를 묘사하는 문맥에서 그 관계의 성격에 따라 “동침하다”, “상관하다”, “교합하다”로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이들은 동일한 원천언어는 가능한 동일한 수용언어로 번역하는 일관성의 원칙을 따라 번역될 필요가 있으며 ‘야다’는 “가까이 하다”로 ‘샤카브’는 “동침하다”로 옮길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샤카브’가 다른 동사(예-‘아나’[“억압하다”])와 함께 쓰여 억압적인 상황을 묘사할 때는 문맥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다른 용어로 번역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의 문맥에서 용어 선택은 피해자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욕을 당하다”, “점탈당하다”보다는 가해자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강제로 성추행을 당하다”로 번역되어야 한다.

완곡어법에 의한 성관계의 표현과 달리 성폭력에 대한 묘사가 완곡어법으로 표현되어 그 의미를 축소시키는 경우는 완곡어법을 사용하더라도 사실을 드러내는 정보성을 담보하고, 그 폭력성을 드러낼 수 있는 문구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 한 예로 마소라 본문이 ‘샤갈’ (“강간하다”)을 ‘샤카브’ (“동침하다”)로 바꿔 읽음으로써 완곡어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보다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본문 상황의 위기와 심각성을 잘 드러내줄 수 있음을 보았다.

‘토에바’의 번역 사례들을 통해 이 용어가 한 문화(종교)가 다른 문화(종교)에 대해 터부시 하는 경우, 그리고 한 문화 안에서 금지된 규율이나 부정한 행위를 지칭하는 관계적 용어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용어는 부적절한 성관계보다(4번) 더 많은 경우 그릇된 제의와 부정의한 사회윤리를 지적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럼에도 교회가 유독 동성애를 ‘토에바’ (“혐오스러운 것”, “가증스러운 것”)로 지칭하는 성서 본문을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번역에 있어서의 일관성 원칙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교회 내 거짓된 제물, 우상숭배, 혼외관계, 근친상간, 성폭력, 거짓, 조롱 등 역시 ‘토에바’로 취급되고 있음에도 이들 조항들에는 관대하거나 묵인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동성애혐오를 조장하며 인용되는 성경본문에서 동성애는 종교, 문화적 관계의 개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 본질에 대한 존재적 규정이 본문에서의 관심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죄인임을 다시금 깨닫고 성경의 특정 본문만 선별하여 다른 이들을 근본적으로 정죄<sup>21)</sup>하고 배제시키기 위한 증

21) 2003년 4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 7조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

빙자료로 사용하기보다 좀 더 적극적인 종교적 가치를 고민하고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sup>22)</sup> 이 연구가 교회가 성에 대한 종교적 가치를 제시하기 위한 자기성찰에 공헌할 수 있기를 바란다.

<주요어>(Keywords)

성경 번역, 일관성 검토, 토에바, 동성애혐오, 완곡어법.

Bible translation, consistency checking, to'ebah, homophobia, euphemism.

(투고 일자: 2011. 3. 9; 심사 일자: 2011. 3. 9; 게재 확정 일자: 2011. 3. 16)

---

기준으로 동성애를 표방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 행위이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이 권고를 받아들일겠다고 공식 발표했으나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성명서를 내고 공문을 발송하면서 이를 반대하여 무산된 사건이다. 이에 4월 26일 한 청년이 종교의 편협함에 분노하며 “수많은 성적 소수자를 낭떠러지로 내모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반성경적이며 반인륜적인지 ...”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숨 프로젝트 엮음, 『하나님과 만난 동성애』(서울: 한울, 2010), 6에서 재인용. 그럼에도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물론, 다른 기독교연합회 단체에서 목사들의 부도덕한 성윤리문제가 사건으로 불거져 나왔을 때 성명서나 공식입장을 밝힌 사례는 없는 점은 일관되지 못한 대응이다.

- 22) 테드 W. 제닝스는 교회가 ‘성’(sexuality)에 대해 결혼관계 외에는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기계적이고 관례적이고 전혀 상관성이 없는 표어 이외에는 뚜렷하게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테드 W. 제닝스, “교회와 동성애: 호모포비아의 극복을 위하여”, 「기독교사상」 618, 223).

<참고문헌>(References)

- Jennings, Ted W., “교회와 동성애: 호모포비아의 극복을 위하여”, 『기독교사상』 618 (2010. 6), 222-236.
- Michaelson, J., “Does the Bible Really Call Homosexuality an ‘Abomination’?” *Religious Dispatch* (July 1, 2010) <http://www.religiondispatches.org/archive/s-exandgender/2826/> 2011. 2. 25 인용.
- Nida, Eugene, “Checking a Translation for Consistency”, *The Bible Translator* 5:4 (October, 1954), 176-181.
- Venuti, Lawrence, ed., *Translation & Minority*, The Translator 4:2, Oldham: St. Jerome Publishing, 1998.
- 김정우, “성경 번역과 신학의 관계성에 대한 고찰”, 『신학지남』, 10-29.
- 민영진, “성경개역개정판, 무엇이 어떻게 개정되었나”, 『월간목회』 293-7(2001. 1-5) 연재.
- 박노철, 『비유언어, 번역방법: 수사적 표현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학술정보[주], 2007.
-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개정 감수위원회, “개역개정판 신약전서 출판에 관한 감수위원회 보고서”, 『성서한국』 41:4 (1995 겨울), 7-10.
- 숨 프로젝트 엮음, 『하나님과 만난 동성애』, 서울: 한울, 2010.
- 이학재, “개역성경의 번역 문제들”, 『개신논집』 6 (2006), 47-61.
- 헤리미악, 다니엘, 『성서가 말하는 동성애: 신이 허락하고 인간이 금지한 사랑』, 김강일 옮김, 서울: 해울, 2003.

<Abstract>

## **A Study on the Euphemism of Sex in Korean Translations**

Prof. Yeong Mee Lee  
(Hanshin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ims to explore ideological premise in the selection of equivalent word while translating biblical texts from Hebrew to Korean and to propose a consistent and inclusive translation that may not exclude minor views or judge them. It examines Hebrew words that depict sexual relationships, such as yadah, shakab, shagal, and to'ebah that are usually rendered to abomination and suggests the followings.

First, the same words and phrases in the same contexts should be translated in the same way to conform to the similarities in the sense. Most Korean translations render words of sexual intercourse by euphemism. For example, yadah is translated as “go to bed” or “sleep with”(Gen 4:1) instead of “have sex” in the context where it describes sexual intercourse between man and woman (Lev 18:22). But Korean translations translate the same Hebrew words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translators’ ethical view of the context. For example, the word is often translated as sexual union when used to depict sexual intercourse of animals. The difference in the selection of corresponding words in Korean reflects homophobia of the translator.

Second, different Hebrew words should be translated into different Korean words to preserve differences. For example, shakab (“sleep with”) is rendered as “being raped” or “put to shame” when it comes with other verbs of enforcement like chazaq (Deut 22:25). There is a Hebrew word for rape, that is shagal.(Isa 13:16) This study suggests to translate the former as “sexually violated” and the latter as “rape”.

Third, the Hebrew to'ebah is employed in two contexts. In religious settings, it refers to idol worship and its customs, improper cultic practice and offerings, and improper sexual relationship including homosexual relationship. Israelite worship is considered as to'ebah to Egyptians (Exod 8:26). The word is usually translated into “abominable” “disgusting”, or “detestable” (Lev 18:22). In

ethical settings, it refers to lie, arrogance, violence, and ridicule. It is translated as “dislike” or “hatred” (Prov 16:5, 12). The word, to’ebah, describes something that is prohibited or a taboo, rather than expressing abomination or any such feelings. Therefore, the word should be consistently translated in the sense of prohibition or taboo.

The consistent rendering of Hebrew into Korean may prevent Korean churches from condemning certain groups as sinners by using the Bible as proof-text when its text is already biased with prejudice and exclusive translation. For example, churches use Leviticus 18:22 and 20:13 against homosexuality as these texts are believed to affirm homosexuality as “abominable”. Yet churches do not mention other religious and ethical misbehavior that are under the list of to’ebah.